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 분절음 특성*

정현성** · 김윤규*** · 이상기****

(한국교원대학교)

Hyunsong Chung · Yoon-Kyu Kim · Sang-Ki Lee. 2016. A Study on the Features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sian Contexts: Segmental Features. *Language and Linguistics* 71, 237-266.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egmental features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in Asian contexts. A speech corpus of 150 conversations between speakers of English in Asia with different L1 backgrounds was collected and analyzed. It was found that lack of vowel length difference before voiceless and voiced obstruents and substitution of obstruents by approximants significantly hindered the intelligibility of the pronunciation, which in turn led to a communication breakdown. Substitution of voiceless fricatives by voiced fricatives or otherwise, substitution of dentals with labio-dentals, and lack of flapping in intervocalic alveolar stops resulted in phonological accommodation on the part of the other interlocutor, while not causing any communication breakdown.

Keywords : Segmental Features, ELF, Pronunciation, Communication, Accommodation

주 제 어: 분절음 특성, 영어공통어, 발음, 의사소통, 수용현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583)

** 제1저자

*** 교신저자

**** 공동저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모국어 배경이 서로 다른 화자가 이해 가능한 대화를 영어로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영어 공통어(ELF: English as a Lingua Franca) 자질 중 분절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 아시아 영어 비원어민 의사소통 상황을 녹음하여 대단위 음성 대화 자료 코퍼스를 구축하고; 2) 녹음된 대화 자료 코퍼스를 음성 및 담화 분석 원칙에 따라 전사하고; 3)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여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발음 특성 중 분절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1.1. 영어 공통어(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영어가 세계화 및 소셜네트워킹, 경제 통합 등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명실상부한 세계적 공통어(lingua franca)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중세 중국어와 라틴어가 공통어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기는 했지만 아시아나 유럽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진정한 세계적 공통어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영어가 실질적으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영어가 식민지 국가에 전파되면서 영어 원어민의 영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식민지가 독립된 이후 영어는 구식민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을 거듭했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식민 지배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국가에서도 영어는 교류의 주요 매개 언어가 되어왔다.

외부집단(outer circle) 및 확장집단(expanding circle) 영어사용자(Kachru, 1985)는 전통적으로 원어민(native speakers)으로 간주되고 있는 내부집단(inner circle) 영어사용자의 수를 넘어서고 있다. Crystal(2003)은 영어가 모국어나 제 2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의 총 인구가 총 75개국 22억 3천 7백만 명에 이르고, 그 중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3억 2천 9백만 명, 영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4억 3천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pp. 62-65). 2016년 현재 세계 인구가 74억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Crystal의 통계에서도 나와 있

듯이 전통적으로 영어 원어민 화자로 간주되었던 내부집단(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의 영어 사용자 수가 외부집단과 확장집단에 이미 추월당했고 실질적으로 내부집단과의 의사소통의 기회보다 비내부집단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를 영어 원어민의 영어나 제 2언어로 학습하고 교육하는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 왔지만, 영어 공통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Widdowson(1994), Seidlhofer(2001), Jenkins(2000, 2007), Deterding and Kirkpatrick(2006), Walker(2010)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비원어민 화자들 간의 대화 자료를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ELFA 코퍼스(www.helsinki.fi/englanti/elfa), 비엔나의 VOICE 코퍼스(www.univie.ac.at/voice) 등의 대규모 대화 자료가 구축되었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Jenkins(2000)의 연구도 4년간의 비원어민 화자 간의 영어 의사소통 자료에 바탕을 두고 진행된 연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코퍼스는 대부분 유럽 중심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역동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시아 상황의 의사소통 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유럽 중심의 코퍼스 분석을 통해 영어 공통어 자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 상황에 적절한 영어 의사소통 음성 대화 자료 코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코퍼스를 찾을 수는 있지만(정현성 2013) 아시아 상황을 포함하는 공개된 코퍼스는 Deterding and Kirkpatrick (2006)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공통어 발음 자질을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은 실제 대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주어진 지문을 읽어가는 틀문장(carrier-phrase sentence)의 녹음을 통한 분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처럼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를 위해 모국어 배경을 달리하는 영어 비원어민 화자의 실제 대화 상황을 통한 코퍼스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1.2. 영어 공통어 자질의 발음 요소

비원어민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공통어 자질은 언어 내적 측면에서

크게 발음, 어휘·문법, 담화·화용적 전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어 공통어 자질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발음 요소라고 할 수 있다. Jenkins(2000, 2002)는 영어 공통어 발음 자질(Lingua Franca Core of English: LFC)에서 반드시 제대로 구현해야 할 요소와 아닌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자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RP(Received Pronunciation)나 GA(General American)에서 통용되는 모 든 자음
- 특히 어두 자음군의 정확한 발음
- 원어민과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관된 모음 길이의 변별성 유지
- 정확한 핵강세 부여

LFC에서는 분절음의 정확성은 비교적 지향해야 할 자질로 간주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자질 특히 일반적으로 영어의 유창성을 위해 영어 교육에서 강조되는 단어 강세, 억양, 리듬, 연음 등은 비원어민 화자 간의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원어민과 같이 정확하게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1.3. 아시아 지역 영어 화자의 분절음 특성

Kachru and Nelson(2006)은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영어 화자의 분절음 특성을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남아시아 지역 영어 화자의 분절음 특성

- 치경폐쇄음 [t], [d]를 각각 권설음(retroflex) [ʈ], [ɖ]로 발음
- 어두 폐쇄음 [p], [t], [k]가 기식음화 되지 않음
- 마찰음 [f], [θ], [ð]를 각각 치경폐쇄음 [pʰ], [tʰ], [d]로 발음
- clear l과 dark l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 [v]와 [w]를 구분 없이 [w]로 발음
- 이중모음을 대부분 단모음으로 발음
- 일부 지역에서 긴장 모음과 이완 모음의 구분이 없음
- 일부 지역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활음이 첨가됨(예: open [wɒpən])

- Punjabi 사용 지역에서 초성의 자음 연쇄는 모음을 삽입해 음절 구조를 단순화 함(예: sport [səport])
- Hindi-Urdu 사용 지역에서는 자음 연쇄 앞에 모음을 삽입(예: sport [isport])
(Kachru and Nelson 2006: 157)

(2) 동아시아 지역 영어 화자의 분절음 특성

- 중국 영어: 긴장 모음과 이완 모음의 구분이 없음
- 중국 영어: 순치마찰음 [f], [ð]를 치경마찰음 [s], [z]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음
- 중국 영어: [v], [w]를 모두 [w]로 발음
- 일본 영어: 자음 연쇄를 해소하기 위해 모음을 삽입
- 일본 영어: 음절말 자음 뒤에 모음을 삽입
- 일본 영어: [θ]를 [s], [z], [ʃ], [t], [ts]로 발음
- 일본 영어: [ð]를 [z], [dʒ]로 발음
- 일본 영어: [l]을 [r]로 발음
- 일본 영어: 음절말 [r]을 [a]로 발음
- 일본 영어: [v]를 [b]로 발음
(Kachru and Nelson 2006: 169-173)

(3) 동남아시아 지역 영어 화자의 분절음 특성

- 필리핀 영어: 폐쇄음이 어두에서 기식음화 되지 않고 어말에서 개방(release) 되지 않음
- 필리핀 영어: [s], [z], [ʃ], [ʒ]를 모두 [s]로 발음
- 필리핀 영어: 어두의 [θ]는 [t]로, 어두 [ð]는 [d]로 발음
- 필리핀 영어: [h]를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말레이시아 영어: 조음 위치상 인접한 모음의 변별이 거의 안됨
- 고모음에서 긴장 모음과 이완 모음의 구분이 어려움
-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발음
- 어두 폐쇄음을 기식화하지 않음
- 치경폐쇄음을 치음으로 발음
- 치찰음(sibilant) [s], [z], [ʃ], [ʒ]간의 변별이 어려움
- 순치음 [f], [v]를 양순음 [p], [w], [b]로 발음
- 치마찰음 [θ], [ð]를 각각 폐쇄음 [t], [d]나 치찰음 [s], [z]로 발음
- 일부 지역에서 어두가 아닌 환경에서 [r]과 [l]이 중화됨
- 일부 지역에서 음절말 자음 연쇄를 단순화 함
(Kachru and Nelson 2006: 188-189)

위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아시아 지역 영어 화자의 분절음 특성을 잘 정리하고 있지만, 연구에서 활용한 기존 문헌이 모국어 배경이 동일한 화자 상황이나, 영어를 차용어로 사용할 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음성 자료가 즉흥적인 음성을 수집할 수 있는 대화 자료가 아닌 낭독 자료나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혼자 답변하는 독백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 작용이 없었다. 다만, Kirkpatrick(2010)은 Deterding and Kirkpatrick(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ASEAN 상황의 ELF 환경 분절음 특성을 관찰하였고, 그 특성은 위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화 상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형적(non-canonical) 분절음 특성이 ELF 상황에서 실현되더라도,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의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성(2013)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국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분절음 특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영어 분절음 중 영국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비정형적인 발음이라도 이해가능성에 문제가 없는 발음 특성과, 이해가능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발음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Deterding and Kirkpatrick(2006)과 정현성(2013)의 연구처럼 모국어 배경이 다른 화자 간의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러한 목록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관찰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ASEAN 상황이나 원어민과의 대화 상황에서 벗어나 전체 아시아 상황으로 확대하여 비원어민과의 대화에 나타나는 분절음 특성을 관찰하였다.

2. 대화 자료

우리나라에서는 모국어를 달리하는 화자 간에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도 않고, 의사소통의 주 매개 언어가 한국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교적 모국어를 달리하는 다양한 화자들이 많고 영어가 일상생활에서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를 접촉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녹음실 확보와 화자 모집이 비교적 용이한 홍콩중문대학(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Department of Linguistics and Modern Languages에서 녹음을 진

행하였다.

2.1. 대화 유도 자료

다양한 소재와 맥락에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총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24개의 말하기 유도 자료를 구축하였다. 최종 대화 유도 자료에 포함된 여섯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 직업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
- (대화 참가자의 국가에서)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영화
-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좋은 교사의 자질
- (대화 참가자의 국가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2.2. 대화 참가자

녹음은 대학에서 제공한 2개의 방음실을 사용하였다. 해외에서 녹음을 진행하는 만큼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인 Tascam DR-100와 Tascam HD-P2를 활용하였고, audio-technica ATM-75 헤드셋을 사용하였다. 각각 별도의 채널에 녹음하였기 때문에 2개의 채널이 사용되었으며, 44.1 kHz 표본화(sampling) 과정을 거쳐 디지털 변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화별로 약 5분간 진행된 총 150개, 750분 분량의 대화를 수집할 수 있다. 개별 대화 자료는 'G01AB1A' 형식으로 파일 이름을 생성하였다. 'G01'은 총 25개 집단 중 첫 번째 집단이라는 의미이며 'AB'는 대화 참여자의 구성으로, 한 집단에 참여한 참가자가 'A, B, C, D' 네 사람으로 'A'와 'B'가 참여한 대화라는 의미이다. '1A'는 대화 자료로 제시된 프롬프트 번호를 의미한다.

100명의 녹음 참가자를 성별로 구분하면 여자는 75명, 남자는 25명이었다. 참가자를 모국어 배경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대화 참가자 모국어 배경

모국어	Cantonese	Mandarin	Korean	2명 참가 (인원/모국어)	1명 참가
인원	30	26	20	12/6	12

2명이 참가한 참가자의 모국어는 각각 Urdu, Tagalog, Putonghua, Japanese, Hokkien, Cantonese/Mandarin(이중 언어 화자는 별도로 분류) 이었고, 1명 참가자의 모국어는 각각 Tamil, Spanish/Cantonese, Sinhala, Punjabi, Malay, Hakka, Jiang Huai Guan Huam, Indonesian, Hindi, English, Cantonese/Hainanese, Bengali 였다. 홍콩에서 녹음한 의도는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지 대학의 헌신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계통의 참가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더 광범위한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한 것은 해외 녹음의 한계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통제가 쉽지 않았다. 모국어가 주요 3개 국어에 편중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음 참가자들의 영어 학습 기간, 하루 영어 사용 비율, 영어권 거주 기간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대화 참가자 영어 노출 정보

	인원	평균	최소	최대	표준 편차
영어 학습 기간(년.개월)	100	14.6	7	27	3.2
하루 영어 사용 비율(%)		43.3	5	100	25.3
영어권 거주 기간(년.개월)		1.6	0.1	27	4.2

참가자의 영어 성적은 별도로 수집하지 않았다. 공인 영어 성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 홍콩의 대학 정규 과정을 영어로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3. 대화 자료의 철자 전사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아시아권 비영어권 화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나는 발음 중 분절음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녹음된 대화 자료를 면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철자 전사 원칙을 확정하였다. 전사 규칙은 대화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Atkinson and Heritage(1984)의 대화분석의 접근을 따르되, 음성·음운학적 특성을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규칙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철자 전사 규칙의 구체적인 부호와 의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철자 전사 규칙

부호	원칙
[동시에 말이 시작된 부분들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말이 접치는 시작과 끝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sei]	발화의 발음을 나타낼 때 필요한 경우 이 부호를 사용함
=	다음 차례의 말이 앞의 말에 바로 이어서 시작되어 간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분절음이나 음절이 연장되어(늘어져서) 발화되었음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잠시 머뭇거릴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필요한 경우 올림조나 내림조의 억양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갑작스럽게 끊기는 발화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강조되어 발화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0.5)	발화 사이의 쉼 간격을 초단위로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전사자(연구자)의 설명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전사가 불가능한 발화 부분이나 전사한 내용이 확실치 않음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hhh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기식(aspiration) 구간에 이 부호를 사용함
heh	웃음소리를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아래는 이 철자 전사 원칙에 따라 전사한 대화의 예시이다. 이 대화는 18세의 홍콩 출신 여성 화자와 21세의 한국인 여성 화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이다.

〈표 4〉 철자 전사의 예시

100 A:	So you s- you said that there is a bat [bæ : t].
	101 D: Uh-huh.
102 A:	You- you mean which bat [bæ : t] because I have two bats [bæ : ts].
	103 I mean but [referring to
104 D:	[You have two beds [bedz]?
105 A:	But referring to different bats [bæts]. What- uh

철자 전사한 자료를 통해 해당되는 발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음성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Praat 음성분석 프로그램(Boersma and Weenink, 2016)을 활용하였다.

3. 분절음 특성 분석

대화 자료는 철자 전사와 음성 파형을 대조해 가면서 분절음의 특성으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분절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귀로 들어서 분절음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음성 파일을 확인해 그 특성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일반화가 아니기 때문에 질적이고(qualitative), 기술적(descriptive), 인상적인(impressionistic) 방식으로 분절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 빈도를 제시할 때 각각 4명씩 총 25개로 이루어진 대화 집단 가운데 5개 미만의 대화 집단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낮은 빈도', 5개에서 10개 집단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중간 빈도', 그 이상의 집단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높은 빈도'로 기술하였다. '중간 빈도'나 '높은 빈도'를 보이는 특성은 일반화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3.1. 자음 탈락

종성(coda)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다음 예시와 같이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 특히 자음 연쇄(consonant cluster)에서 탈락이 더 자주 관찰되었다.

132 A: Oh, oh, those are some protective [prətetɪv] uh stuff.
(G11AD6A 4:04-6:15)

9 much. Ah character is the point. And because um hmm and also the
relationship [rɪleɪʃənp] with students, eh yeah
(G20BD5D 0:00-2:00)

〈표 5〉 종성 자음 탈락이 발견되는 단어

accept [əsept]	actor [ætə]	also [ɔsoʊ]
both [boʊ]	box [bɒs]	bronze [brɒŋ]
but [baɪ]	character [kærɪtə]	concentrate [kɒnsətreɪt]
contact [kɒntækt]	correct [kəret]	culture [kʌltʃə]
difficult [dɪfɪkət]	exercise [eksəsaɪ]	exercise [esəsaɪz]
experience [ɪspɪəriəns]	factor [fæktə]	factors [fæktəz]
first [fɜː]	gambling [gæblɪŋ]	heard [hɜː]
help [hɛp]	lexical [lɛsɪkəl]	like [laɪ]
met [met]	picture [pɪktʃər]	protective [prətetɪv]
provide [pəvwaɪ]	rabbit [ræbɪ]	relationship [rɪleɪʃənp]
relax [rɪlæks]	relaxing [rɪlɛsɪŋ]	reluctant [rɪlʌtənt]
skate [skeɪt]	something [səmθɪŋ]	spouse [spaʊz]
stress [streʃ]	think [θɪŋk]	thoughts [θɔːts]
time [taɪm]	what [wɒt]	

탈락되는 종성 자음은 탈락되기 전 종성에 하나의 자음만 있을 경우에는 치경무성폐쇄음인 [t]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음 연쇄에 있는 [k]도 탈락의 빈도가 높았다.

초성(onset)에서도 자음 연쇄가 있을 때 'flexible [fleksɪbl], play [pleɪ], professor [prɒfəsə], trouble [trʌbl], spouse [spaʊz]의 예와 같이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낮은 빈도이지만 관찰할 수 있었다. 흥미 있는 것은 초성에서 탈락하는 자음은 자음 연쇄에서 공명도(sonority)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음이 탈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음운 발달과 언어 병리 및 외국어 언어 학습에서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다(Yavaş 2011). 즉 공명도가 높은 자음이 탈락함으로써 초성에 남아있는 자음과 음절핵(nucleus)간의 공명도 차이가 커져서 보다 더 무표적인(unmarked) 음절 구조를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flexible'의 경우 자음이 탈락되기 이전 첫 음절 초성에서 [f]는 공명도가 3이고, [l]은 공명도가 6, 음절핵 [e]는 공명도가 9이다. [f]가 탈락하면 남아있는 [l]과 음절핵의 공명도 차이는 $9-6=3$ 이 되고, [l]이 탈락하면 남아있는 [f]와 음절핵의 공명도 차이가 $9-3=6$ 이 된다. 따라서 공명도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l]이 탈락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단어들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자음 연쇄의 초성 자음이 탈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유/무성화

다음 대화에서 한국인 화자가 'housing fee'라는 단순한 표현을 [haʊsɪŋ fi]로 발음 했을 때 중국인 화자가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 들었을 때 중국인 화자가 [haʊzɪŋ]으로 수정해 이해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 62 B: Yeah, housing [haʊsɪŋ] fee in Hong Kong is really expensive.
 63 A: Oh, really?
 64 B: Yeah, house=
 65 A: =Oh, housing [haʊzɪŋ]. Yes, yes. Huh, I'm not expected to have a house. Or easily

(G01AB2A 3:23-4:25)

또 다른 유/무성화가 관찰되는 다음 대화에서 A는 Cantonese가 제1언어이고, D는 한국어가 제1언어이다.

- 147 A: Yeah, is it. Is it facing [feɪzɪŋ] [which side
 148 D: [facing [feɪzɪŋ] a rabbit.

159 D: Then one facing [feɪsɪŋ] is a sky um wearing wine color.

(G25ADLAKE 6:01-7:00)

147, 148번 발화와 같이 이어진 대화에서 'facing [feɪzɪŋ]'이 발화될 때에는 A의 어중 마찰음이 정형적인(canonical) 발음이 아닌 다소 유성화된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D가 수용(accommodation)적으로 대응해 A의 발음과 똑같이 발

음하고 있다. 이어진 대화에서 동일한 단어가 발화되지 않는 159번 발화에서는 D의 발음이 정형적인 발음에 가깝게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발음의 전략상 대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본인의 발음 목록에는 정형적인 것과 아닌 것이 공존하고 있다가 의사소통 전략상 가장 수용적인 발음을 의사소통에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things [sɪnz], wife [waɪv], nice [naɪz], results [rɪsɪlts], movie [muvi], also [ɔlzə], suppose [səbəʊz]과 같이 주로 유성 마찰음을 무성으로, 무성 마찰음을 유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중간 빈도로 등장하였다. 'okay [oʊgeɪ], lake [leɪk], keep in [kiptɪn]와 같이 무성 폐쇄음을 유성화 하는 특성도 낮은 빈도이지만 관찰할 수 있었다.

3.3. 유/무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

유성 자음 앞에서는 음성적으로 모음이 상대적으로 길어야 하고 무성 자음 앞에서는 짧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음 뒤의 자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모음 길이가 구현되지 못한 경우를 중간 정도의 빈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맥락에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음의 장/단이가 단어를 변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대화에서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hard [hɑt]', 'bat [bæ:t]', 'food [fu:t]' 등이다. 다음의 대화는 그림에 있는 사물에 대해 대화하는 가운데, 모음의 정확한 음가 차이와 더불어 음성적 길이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실례이다.

100 A: So you s- you said that there is a bat [bæ:t].

101 C: Uh-huh.

102 A: You- you mean which bat [bæ:t] because I have two bats [bæ:ts].

103 I mean but (referring to

104 C: (You have two beds [bedz]?)

105 A: But referring to different bats [bæts]. What- uh

106 C: Bag [bæ:g] or bed [be:d]?

107 A: Bats [bæts] heh B. A. T or becau-

108 C: Bat [bæt]?

109 A: Yeah.

110 C: B. A. T?

111 A: Yeah. Bat [bæ:t]. I have a bat [bæ:t].

(G25ACBEDROOM 5:05-7:13)

Cantonese가 제1언어인 화자 A와 한국어가 제1언어인 화자 C는 A가 의도한 단어 'bat'에 대해서 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것은 A가 발음하는 'bat' 단어의 /æ/ 음가가 C가 구현하는 것과 다르고, 음성적 길이가 비교적 더 길어서 C는 A가 의도한 'bat'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화와 이어지는 대화에서 발화되는 A와 C가 의도한 'bat, bed, bag' 단어의 모음 길이와 F1, F2 수치는 <표 6, 7>과 같다. 화자가 의도한 단어와 청자가 이해한 단어는 대화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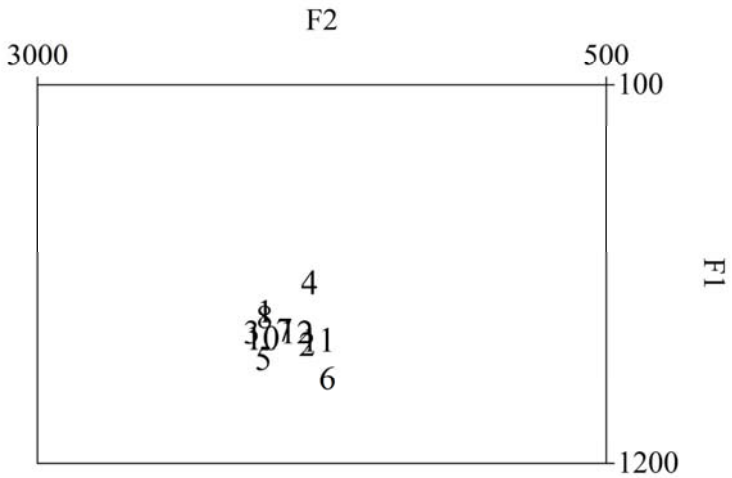
<표 6> 화자 A가 발화한 모음의 길이 및 F1, F2

번호	길이	F1	F2	A가 의도한 단어	C가 이해한 단어
1	261	760	1998	bat	bed
2	234	856	1814	bat	bed
3	225	822	2057	bat	bed
4	119	676	1804	bat	bed
5	164	897	2007	bat	bed
6	206	955	1725	bat	bat
7	183	815	1915	bat	bat
8	172	777	2002	bat	bat
9	294	1028	1790	bed	bed
10	241	838	2011	bat	bat
11	129	843	1766	bat	bat
12	213	822	1861	bat	b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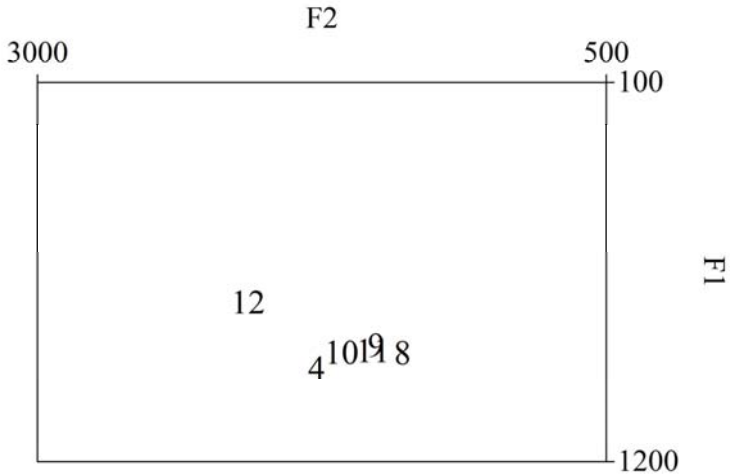
〈표 7〉 화자 C가 발화한 모음의 길이 및 F1, F2

번호	길이	F1	F2	C가 의도한 단어	A가 이해한 단어
1	183	847	1673	bed	bat
2	228	968	1670	bag	bag
3	184	893	1620	bed	bat
4	149	932	1773	bat	bat
5	200	987	1979	bed	bed
6	184	903	1884	bed	bed
7	210	986	1737	bed	bed
8	351	887	1396	bat	bat
9	125	865	1512	bat	bat
10	189	886	1664	bat	bat
11	188	881	1526	bat	bat
12	219	740	2074	bat	bat

위 정보를 바탕으로 A와 C가 발화한 'bat'만을 골라 해당 모음의 모음도를 그려보면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 화자 A의 'bat' 모음 분포



〈그림 2〉 화자 C의 'bat' 모음 분포

위 표와 그림을 통해서 A는 'bat'의 /æ/ 모음을 비교적 중설(central)에 가까운 전설모음(front vowel)과 중모음(mid vowel)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고, 모음의 평균 길이는 195 밀리세컨드로 측정되었다. C는 'bat'의 /æ/ 모음을 모두 중설과 저모음(low vowel)에 가깝게 발음하고 있고, 모음의 평균 길이는 비정상적으로 발화된 8번 단어를 제외하고 174 밀리세컨드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음가와 길이에서 특정 음에 대한 자질이 대화자 간에 일치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 철자를 이야기 하고서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대방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A는 111번 대화에서처럼 음성적 길이 조절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로 수용현상(accommodation)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C는 A가 그림에 대해 말한 단어가 실제로 무엇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3.4. 비음의 연구개음화

비음이 후속음의 조음 위치에 상관없이 연구개음으로 발음되는 특성이 아래 발화에서처럼 높은 빈도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Cantonese와 Mandarin이 제1언어인 화자에서 두드러졌다.

54 B: but, I haven't seen [sɪŋ] it. Yes, I think, uhm, maybe it can be watched?.

(G01BC3B 1:13-3:33)

7 would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And because um when [wɛŋ] you get

(G12AB4C 0:56-3:30)

이 외에도 후속 분절음의 조음위치와 상관없이 연구개음화가 되는 단어는 아래와 같다.

〈표 8〉 연구개음화의 특성이 나타난 단어

bronze [brɔŋ]	champion [tʃæmpɪŋ]	consider [kɒnsɪdə]
don't [dɔŋ]	hunter [hʌŋkə]	in [ɪŋ]
interest [ɪŋtərəst]	join [dʒɔŋ]	kind [kaɪŋ]
main [meɪŋ]	mean [miŋ]	microphone [maɪkrəʊfəʊŋ]
months [mʌŋθs]	one [wʌŋ]	only [ɔŋli]
same [seɪŋ]	when [hwɛŋ]	

비음 외에도 'suggested [sʌdʒesɪŋ]', 'watch it [wɔtʃɪŋɪŋ]'처럼 폐쇄음이 연구개비음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낮은 빈도이지만 발견되었다.

3.5. 모음의 단모음화

아래 예시 발화와 같이 이중모음(diphthong)이나 이중모음이 아닌 긴장모음에서 경과활음(off-glide) 자질이 사라진 단모음(monophthong)이 되거나 다른 음가를 가진 단모음으로 대체되는 특성을 높은 빈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흥미

로운 것은 연구개 경과활음의 성질이 있는 이중모음 [aʊ]나 긴장모음 [oʊ] 보다 구개(palatal) 경과활음 성질이 있는 [aɪ]와 [ɔɪ], [eɪ]에서 압도적으로 단모음화의 경향이 컸다.

39 D: (0.6) like, um, male [mɪl]

(G09AD3A 1:45-3:46)

21 do anything and I'm not ah brave [brɪv] enough to change [tʃeɪnʤ] another situation

(G11BD5B 0:00-1:57)

이 외에도 본 연구에 사용된 음성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모음화의 경향을 보이는 단어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9〉 단모음화의 특성을 보이는 단어

able [eɪbəl]	childhood [tʃɪlhdʊd]	cope [kɒp]
enjoy [ɪnʤɔɪ]	financial [fɪnænsɪəl]	find [faɪnd]
games [ɡeɪmz]	great [ɡreɪt]	hate [heɪt]
how [haʊ]	jail [dʒeɪl]	kind [kaɪnd]
lake [leɪk]	life [laɪf]	main [meɪn]
major [meɪʤə]	make [meɪk]	might [maɪt]
name [neɪm]	note [nəʊt]	point [pɔɪnt]
quite [kwaɪt]	same [seɪm]	shape [ʃeɪp]
takes [teɪks]	tired [tɪəd]	vase [veɪs]

3.6. 장애음의 접근음화

아래 예시와 같이 장애음(obstruent)이 [l], [r], [w], [h] 등의 접근음(approximant)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높은 빈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67 can I earn my living [lɪvɪŋ] cost through the job.

68 B: uh, living [lɪvɪŋ] cost?

69 D: Ah, yes.

70 B: I-I-I don't really I understand.

71 D: Can I earn the money to support my living [lɪvɪŋ]?

72 B: Ah, ah, yes, yes.

(G09BD2B 4:12-6:07)

43 B : They failed [lə feɪ]?

44 C : Repel [lə feɪ]?

45 B : They did not succeed to uh escape from the jail [dʒeɪ] or

46 C : Yeap, finally they couldn't couldn't escape from jail [but they

(G10BC3D 1:59-4:02)

G09BD2B 대화의 67번 발화에서 D가 'living [lɪvɪŋ]'이라고 발음했을 때, B는 'living [lɪvɪŋ]'이라고 반문하면서 D가 의도하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다. B가 뜻을 설명하고자하여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긴 하지만, D는 여전히 해당 단어를 비정형적인 발음으로 전달하고 있다.

G10BC3D 대화의 43번 발화에서 타이완 출신의 Cantonese를 제1언어로 하는 화자가 'They'의 첫 음 [ð]를 유음 [l]로 대체하고 있다. 일본어를 제1언어로 하는 화자 C는 전혀 무슨 단어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화자 B의 발음을 되풀이해 묻고, B는 뜻을 풀어 설명하면서 대화를 지속해 간다.

따라서 장애음이 접근음으로 변화할 때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5분간의 짧은 대화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발음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쉽게 수용현상을 보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의 음성자료에 나타나는 장애음이 접근음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10〉 접근음화의 특성을 보이는 표현

actually [æhuəli]	because [bɪhəʊz]	build up [bɪlʌp]
cause [həʊz]	consider [kənsɪrə]	content [kɒnhent]
day [deɪ]	department [dɪhɑrtmənt]	detective [dɪlektɪv]
have [hæv]	large [lɑ:dʒ]	lord of [lɔ:lɒv]
over [oʊwə]	provide [pəwaɪ]	regarding [rɪgɑrɪŋ]
study [stʌdi]	that [læt]	them [lɛm]
tragedy [ˈfrælədʒi]	volleyball [ˈvɒləbɔ:l]	

3.7. 유음의 활음화

[l]과 [r]등의 유음이 아래 예시와 같이 활음 [w]로 활음화되는 특성이 중간 정도의 빈도로 관찰되었다.

103 D: Yeah, right, right. More casual relationship [wɪwɛfənʃɪp].
(G03BD5B 03:56-05:52)

10 I am thinking not to be a programmer [pwɔŋgwæmə] or something related to it.
(G22AC2C 0:00-2:00)

[l]의 변화 빈도보다 상대적으로 [r]의 변화 빈도가 더 높았다. 흥미 있는 것은 이러한 특성은 제1언어의 음운발달 단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언어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유아들은 [r]을 습득하기 이전에 [w]을 먼저 습득한다(Celce-Murcia, Brinton, and Goodwin 2010). 예를 들어, 'rich'의 [r] 음을 습득하기 이전에 'witch'의 [w] 음을 먼저 습득하게 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영어를 비교적 유창하게 구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유음의 경우 활음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중간언어(interlanguage) 단계의 음운 발달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활음화의 특성을 보이는 단어는 이 외에도 'during [djuwɪŋ], high school [skuwə], long [wɔŋ], personally [pɜsənwi], try [twai], very [vewi], wearing [wɛəwɪŋ]'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3.8. 치음의 순치음화

치음인 [θ], [ð]가 순치음인 [f]와 [v]로 대체되는 특성을 중간 정도의 빈도로 발견할 수 있었다.

43 C: Both [boʊf]- both [boʊf] is=
44 B: =Both [boʊθ]=
45 C: = I-I like=-

46 B: =Oh, you like that [kind hehheh
(G05BC3B 0:06-1:39)

76 D: Um. So, what else do you like about movies? Do you like action movies like the popular ones?

77 A: Um umm. I think uhm actions, movies, is ((수의 일치, are)) worth [wɜf] to see in cinema

78 (((sməmə)로 발음))

79 D: Worf [wɜf]? Like worth [wɜθ], [yeah, yeah, yeah.
(G21AD3A 2:11-4:20)

G05BC3B 대화에서는 C화자가 'Both [boθf]'라고 발음하였지만 B 화자는 자신이 'Both [boθθ]'로 수정하여 표현을 이해하고 있고, G21AD3A 대화에서도 A 화자가 'worth [wɜf]'라고 발음하였지만, D 화자는 A의 발음을 한 번 반복한 후 정형적인 발음으로 수정하여 'worth [wɜθθ]'라고 발음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듣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대화 상대방의 발음을 자신의 발음 목록에 수용하여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순치음화는 'healthy [helʃi], think [fɪŋk], three [fri], university [junɪwɜsɪti], with [wɪf], with [wɪv], without [wɪvəʊt]' 등의 단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3.9. 치음의 치경음화

치음 [θ], [ð]가 [t], [d], [z] 등의 치경음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중간 정도의 빈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12 uh at least uhm be loyal or faithful [fertʃəl] to uhm his or her spouse. What do you think?
(G20AB4C 0:00-2:01)

024 A: [Yes. I think this is quite a relaxing activity and this is healthy [helzi] too. [And-
(G21AB1A 0:00-2:03)

이 외에도 'then [zɛn], thing [dɪŋ], thing [sɪŋ], things [tɪŋz], think

[dɪŋk], think [sɪŋk] 등 유사한 단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치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10. 폐쇄음의 마/파찰음화

[t], [d], [g] 등의 폐쇄음이 마찰음 또는 파찰음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중간 정도의 빈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27 B: Yeah. And I think, um, the volume and his voice also [matters
[mæɟəz] ↑, right?

(G16AC5C 00:00-02:02)

27 A: mathematics teacher. He's definitely a, an expert [ɪkspəʔs] in
calculating things.

(G19AD5A 0:11-2:06)

이 외에도 'at [æt], colleagues [kəlɪdʒɪz], future [fjuɟə], might [maɪt], put as [pʊs æs], riding [raɪdɪŋ]' 등의 표현에서 폐쇄음이 마찰음이나 파찰음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3.11. 기타 분절음 특성

지금까지 높은 빈도나 중간 빈도를 보이는 분절음 특성 가운데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특이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다른 분절음 특성 가운데는 높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상황의 화자들에게서 매우 일반적이어서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특성도 있고, 특이한 분절음 특성이지만 그 빈도가 낮아서 논의가 어려운 특성도 있었다.

빈도는 낮지만 논의가 필요한 특성은 치경폐쇄음의 설탄음화이다. 미국영어에서 치경폐쇄음을 설탄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음 대화에서는 설탄음으로 발음하지 않았을 때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 44 C: {The figure skating [sk^hɛɪt^hɪŋ]}
 45 A: {Yuna? Eh?}
 46 C: Figure, figure skating [skeɪɪŋ].
 47 A: Ah figure skating [skeɪɪŋ].

(G19AC6A 2:05-4:10)

44번 발화에서 C가 'figure skating [sk^hɛɪt^hɪŋ]'을 발음 했을 때, A는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C가 46번 발화에서 설탄음으로 수정해 [skeɪɪŋ]으로 발음했을 때, A는 그 표현을 이해하고 호응해 주고 있다.

대화 참가자 중 특히 'watch' 단어의 과찰음 [ʃ]를 마찰음 [ʃ]로 대체해 발음하는 경우가 낮은 빈도로 등장하였다.

- 80 C: [I like watching tennis but after I came here because no one watches [wafɪz] it. At home my all my family

(G04BC6D 4:17-5:57)

- 8 A: Uh, many teenagers love him, so they will, uh, watch [waf] his film.

(G22AD3C 0:00-2:00)

이러한 특성은 Cantonese, Mandarin 화자에게서 종종 발견되었다.

높은 빈도이지만 논의하지 않은 분절음 특성 가운데 'climbing [kɹaɪmɪŋ]'과 'learn [ɹɹæn]'과 같이 유음 [l]과 [r]이 서로 교체되면서 비정형적으로 발음되는 특성이 있다. 높은 빈도이지만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머뭇거림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유음이 서로 교체되는 예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유음의 교체 특성을 보이는 단어

Brazil [blæzɪl]	considerate [kənsɪdələɪt]	language [ræŋgwɪdʒ]
lines [raɪnz]	rate [leɪt]	really [ri:əli]
related [rɪleɪtɪd]	religion [rɪlɪdʒn]	right [raɪt]
rose [loʊz]	rude [lud]	value [væljʊ]

'factor [faktəri]'와 'subject [sʌbdʒektɪ]' 등과 같이 어말 자음에 모음이 첨가되는 특성과 'approach [əprəʊtʃ]'와 'changed [tʃeɪnzd]'와 같이 구개음이 치경음화로 바뀌는 특성 또한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지만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cooking [kʊkɪŋ]'과 'long [lɒŋ]'과 같이 연구개비음이 치경음으로 발음되는 특성과 'energy [ənɜːdʒi]', 'league [liːg]' 등과 같이 공명음이 설탄음으로 바뀌는 특성은 중간 정도의 빈도로 관찰되었다. 'said [seɪd]'와 같이 단모음이 이중모음화 되는 특성, 'year [diːr]', 'taller [tɔːlə]'와 같이 접근음이 폐쇄음으로 바뀌는 특성, 'contact [kəntækt]', 'fantastic [fənæstɪk]'에서처럼 폐쇄음이 비음화 되고, 'bachelor [bəkələ]', 'very [ɡeri]'처럼 마찰음이 폐쇄음화 되는 특성은 특이하지만 낮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또 'funny [fʌn:i]', 'running [rʌn:ɪŋ]'처럼 철자 상 겹자음이 있을 때 자음을 장음화하는 특성도 낮은 빈도로 관찰할 수 있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상층의 비원어민 영어 화자가 영어 공통어(English as a lingua franca)를 사용하는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분절음 특성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집단별로 4명의 영어 화자가 참여하여 총 25개 집단 150개, 750분 분량의 음성 대화 자료를 구축하였다. 각 대화에는 두 사람이 참여하였고, 대화의 주제는 6개의 일상적 소재를 임의로 각 1개만 제시하여 즉흥적이고 자유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는 분절음 특성은 'protective [prətektɪv]'처럼 종성의 자음이 탈락되거나 'flexible [fleksɪbl]'처럼 초성에 나오는 자음 연쇄의 자음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 탈락, 'housing [haʊsɪŋ]', 'facing [feɪzɪŋ]'처럼 유성 자음은 무성으로, 무성 자음을 유성으로 발음하는 특성, 'hard [hɑːt]', 'bat [bæ:t]'처럼 유/무성 자음 앞 모음의 음성적 길이 통제가 어려운 특성, 'seen [siːn]'같은 비음의 연구개음화, 'male [maɪl]'처럼 이중모음 또는 긴장모음이 단모음화 되는 특성, 'living [lɪvɪŋ]'같은 장애음의 접근음화, 유음 [l]과 [r]

의 상호 교체, 'factor [faktəri]'과 같은 어말 자음 뒤 모음 삽입 등이다.

중간 정도의 빈도를 보이는 분절음 특성은 'programmer [pɹɔgwæmə]'처럼 유음이 활성화되거나, 'worth [wɜːθ]'같은 치음의 순치음화, 'faithful [fertʃəl]' 같은 치음의 치경음화, 'matters [mædʒəz]', 'expert [ɪkspɜːt]'같은 폐쇄음의 마찰음 또는 파찰음화, 연구개비음의 치경음화, 공명음의 설탄음화 등이다.

낮은 빈도이지만 몇몇 대화에서 발견되는 분절음 특성은 'watches [wɑːtʃɪz]'에서처럼 [ʃ]를 [ʒ]로 대치하거나, 단모음의 이중모음화, 접근음의 폐쇄음화, 폐쇄음의 비음화, 마찰음의 폐쇄음화, 자음의 장음화 등이다. 치경폐쇄음이 미국영어에서처럼 설탄음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을 때 수용현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주목할 분절음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 중 몇몇 특성은 비원어민 간 영어 공통어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수용현상을 수반하게 하고,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지만, 언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의 음운 발달 단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우선 최소한 본 연구의 음성자료를 통해 발음의 이해가능성이 떨어져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특성은 유/무성 자음 앞 모음의 음성적 길이 차이, 장애음의 접근음화 특성이다. 두 특성 모두 본 연구의 음성 자료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만큼 실제로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의사소통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빈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화자와 청자 간에는 발음의 이해가능성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성 자료에서처럼 비원어민 간 의사소통에서는 실제로 지장을 가져와 이해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무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 차이는 한국과 아시아권의 영어 사용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음성 자질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따라서 영어 학습 환경에서 발음 측면에서 이러한 발음은 정형적인 발음에 가깝게 발음하거나 최소한 이해가능성에 문제가 없도록 발음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듣기 측면에서도 비원어민 간 의사소통에서 빈번하게 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정형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발음을 어휘 목록에 내재화시켜 청자 측면에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듣기 활동도 필요하다.

수용현상을 수반하는 분절음 특성은 마찰음의 유/무성화, 치음의 순치음화, 치경폐쇄음이 설탄음화되지 않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의 음성 자료에서 청자가 쉽게 발음의 비정형성을 인지하고, 대부분 그것을 수용해서 비정형적인

발음을 반복해 주거나, 정형화된 발음으로 고쳐서 대응한다. 이것은 Jenkins(2000, 2002)가 제시했던 비원어민 화자 간 의사소통(ILT: interlanguage talk) 모델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수용(accommodation)과 수렴(convergence)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수용현상은 청자가 차후에 동일한 화자와 대화하거나, 그 화자와 동일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화자와 대화할 때 경험한 비정형적 발음을 본인의 어휘 목록에서 내재화시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언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의 음운 발달 단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분절음 특성은 초성에 오는 자음 연쇄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는 특성이다. 본 연구의 음성 자료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단어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해당 자음의 탈락 이후, 남아있는 자음과 음절핵과의 공명도 차이가 탈락된 자음과 음절핵과의 공명도 차이보다 더 크다. 이것은 자음과 음절핵과의 공명도 차이가 더 클 때 더 무표적 음절구조라는 음운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본 연구의 음성 자료에서도 그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음의 활음화는 본 연구의 음성 자료에서는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음운 발달 단계에서 [w]이 [r]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이것은 비정형적이긴 하지만 아직 화자가 중간언어 단계의 음운 발달 단계에 있다고 판단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대화 자료를 음성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음성 자료에 비해 좀 더 진정성이 있는 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질문에 대해 화자가 일방적으로 독백하거나, 통제된 문단이나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대화에 대해서 두 사람의 참가자가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성이 곧 제한점이기도 하다. 통제된 음성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변인이 너무 많고, 그 변인을 일반화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았다. 또 음성 분석을 위해서는 끊어짐이 없이 유창한 자료가 필요한데, 끊김과 간투사가 너무 많아 분석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본 연구가 대화 당사자 간의 이해가능성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청취 평가 등을 통해 특정 화자의 발음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일반화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 실제로 특정 발음을 대화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도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사소통의 단절을 나타내 주는 구체적인 표시가 없으면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언어 개별적인 특성을 영어 공통어로 묶어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비영어권 간 영어 공통어를 사용할 때 예상되는 분절음 특성을 목록화 함으로써, 아시아권 영어 화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발음 교육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절음 특성이 더 대규모 음성 대화 자료에서도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사소통이나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근본적인 즉흥 대화 자료에 대한 보완점은 무엇인지 추후에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홍콩 현지 녹음 진행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신 홍콩중문대학교(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의 Peggy Mok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정현성 (2013) 다언어 화자 간 담화 상의 영어 자음 발음 수용과 수렴 현상: 영국의 한국인 영어 학습자 사례. 『언어와 언어학』 59: 241-266.
- Atkinson, J. M. and J. Heritage (2006) Jefferson's transcript notation. In A. Jaworski and N. Coupland (eds.), *The Discourse Reader*. Routledge.
- Celce-Murcia, M., Brinton, D. M. and J. M. Goodwin (2010) *Teaching Pronunciation: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ystal, D. (2003)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terding, D. and A. Kirkpatrick (2006) Emerging Asian Englishes and intelligibility. *World Englishes* 25(3-4): 391-410.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J. (2002) A sociolinguistically-based, empirically researched pronunciation syllabu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3(1): 83-103.
- Jenkins, J. (2007) *English as a Lingua Franca: Attitude and Identity*. Oxford University Press.
- Kachru, B.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 Quirk and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chru, Y. and C. Nelson (2006) *World Englishes in Asian Contexts*. Hong Kong University Press.
- Kirkpatrick, A. (2010)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SEAN*. Hong Kong University Press.

- Seidlhofer, B. (2001) Closing a conceptual gap: The case for a description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1(2): 133-158.
- Walker, R. (2010)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Oxford University Press.
- Widdowson, H. G. (1994) The ownership of English. *TESOL Quarterly* 28(2): 377-389.
- Yavaş, M. (2011) *Applied English Phonology* (2nd ed.). Wiley-Blackwell.

<인터넷 자료>

Praat: Doing Phonetics by Computer - <http://www.praat.org/>
(검색일: 2016년 2월 1일)

정현성

[28173]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hchung@knue.ac.kr

김윤규

[28173]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ykyu@knue.ac.kr

이상기

[28173] 충북 청주시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slee@knue.ac.kr

논문접수: 2016년 4월 2일

수정완료: 2016년 5월 18일

게재확정: 2016년 5월 23일